

# 영산강 르네상스

## <2부> 아름다운 강으로

### 2 자연 숨쉬는 생태하천 탈바꿈

과거 70~80년대 영산강 개발은 홍수 예방과 경지 면적 확보, 농업용수 확보에 우선됐었다. 이 때문에 영산강 물길이 막히고, 강 유량을 대폭 줄이면서 영산강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사실상 농업 우선 정책이 영산강을 희생시킨 셈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4대 강 수계 중 영산강 유역 내 토지의 33.6%가 농경지일 정도로 농지 비중이 커 수질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영산강이 이제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영산강 제1의 지류 하천인 '황룡강'의 생태계가 아직도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등 생태하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류만이 아닌 지류 하천과 '셋강'에 대한 환경 정비사업에 높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영산강 본류에만 신경을 쏟다가 자칫 건강한 영산강 지천들의 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산강 제1지천인 황룡강 생태환경 '양호' =영산강 지류 하천인 황룡강에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발견되는 등 생



'죽음의 강'에서 '생태 하천'으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 영산강. 본격적인 각종 환경정비 사업 등에 앞서 지천과 셋강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함평천과 합류지점인 나주시 다시면 석관정 전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지천·셋강 환경정비, 생태계 복원 선행돼야

### 농경지 줄이고 생태하천 10곳 조성 광주천 오염원 관리 핵심지역 지정

태계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심 속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4곳이 습지보전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생태하천의 모습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황룡강 수생태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물 271종 ▲저서 무척추동물 50종 ▲어류 27종 ▲조류 80종 등은 물론 멸종위기종 7종, 천연기념물 4종이 발견됐다.

영산강 수질이 악화하면서 생태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데도 황룡강의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무엇보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삿, 말뚝가리,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등이 전 지역에서 골고루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룡강은 영산강 권역의 영산강 수계에 속하며, 영산강의 제1지류이다.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입암산성 서북쪽 골짜기에서 발원, 61.9km를 흘러 광산구 송정마을 앞에서 영산강으로 흘러든다. 광주에 속한 유역은 광산구 광산동 오룡교에서 영산강 합수지점까지 24.1km다.

◇영산강 환경정비 사업 어떻게 되나? =우선 영산강 유역 내 경지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영산강에서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생태하천이 곳곳에 조성된다.

담양군 용소에서 발원해 목포시 영산강 하구둑까지 136.7km에 이르는 영산강 유역 내 10곳(총 연장 73km)에 생태하천이 조성되며, 10여km의 농경지도 정리된다. 여기에 노후한 제방 4개

소 17km도 보강되고, 나주시 영산동에 강변 저류지도 새로 생긴다. 강변으로는 220km의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지는 등 콘크리트 호안과 직강화 등 홍수방어용 하천이 앞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된다.

또한, 오는 2012년 영산강 본류의 수질을 평균 2급수로 확보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등이 24개소에 만들어진다. 주로 비점 오염원관리 중점관리구역인 영산강 상류와 중류, 하류, 하구연 등에 중점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여기에 영산강의 주된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광주천도 오염원 관리 핵심 유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산강이 예전의 생명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뚝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영산강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주요 지천에 대한 수질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영산강은 좀처럼 생명력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황룡강 등 생태계가 양호한 지천과 사실상 이미 지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천 등을 구분해 단계적인 환경정비 사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아직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지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명확하게 진단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임동욱 호남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황룡강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는 입곡습지와 산막습지 등 4곳의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영산강 지류인 황룡강의 생태계 환경이 좋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습지를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황룡강은 물론 본류인 영산강도 서식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인간과 자연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기기자 kps@kwangju.co.kr

■ 특별기고 조기안 초당대 환경공학과 교수



## 생활용수 확보 포함 다목적 '영산강 살리기'를

영산강은 길이가 136km인 크지 않은 강이다. 섬진강이 212km이고 낙동강의 지류인 금호강이 118km이니 어쩌면 강이랴기보다 하천이라는 말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약 250만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나주평야라는 넓은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으니, 물 공급대비 수요가 매우 커서 효율성은 높은 반면 적정 환경용량 즉 완충용량을 초과할 때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영산강 수질오염문제도 수계의 환경용량을 초과한 오염발생으로 투자대비 개선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과 수요를 줄이는 것 가운데 택일해야 한다.

영산강 살리기에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좋은 답이다. 그러나 이는 수요자가 진정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 수요자가 원하는 내용은 최상급의 생활용수인데 공급자는 수질의 최하등급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영산강수계에 14개 저수지를 높여서 부족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영산강수계가 물 부족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생활용수 부족 때문이므로 서로 방향이 엇갈린다. 그러다보니 '하천정비'인가 '운하사업'인가 오해만 낳았다. 무엇보다도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다목적이어야 한다. 홍수에 따른 치수와 농업용수, 그리고 생활용수를 포함한 이수를 전제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최근 200년 빈도의 홍수와 함께 한 해를 대비한 전제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영산강수계의 14개 댐과 저수지 그리고 2개의

수중보에 확보된 약 1억의 용수 수질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 농업용수라는 제한된 목적으로 건설된 댐이나 저수지 수자원은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다. 실제로 상류 4개 댐에서 댐 유입량에 약 15%만 하천유지용수로 흘러 보내면서 영산강수질 악화가 발생했다. 또한 적정용수부족은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지역발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

둘째,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부처별 사유개념은 포기해야 한다. 현재 영산강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데는 물에 대한 소유권주장 때문이다. 따라서 수중보 건설도 양질의 수자원확보가 담보된다는 확증이 없으면 재검토돼야 한다. 이제 마음을 비워야 한다. 물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이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과 수량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 농림부, 익산국토관리청, 전라남도, 광주시가 함께하는 가칭 '영산강수계 수자원관리위원회'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거나, 최근 대통령직속으로 만들어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해야 한다.

영산강살리기를 일부 지자체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는 뱃길복원에 매달린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해당 지자체는 거의 100% 생활용수를 타수계인 주암댐에 의존하고 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지역개발은 영원히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George Winston Solo Piano Concert in Korea

# 조지 윈스턴 대만공연

## 일상에 지친 가슴속에는 '자연의 선율'

2009. 7. 1 Wed 8:00PM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티켓마루, 옥션티켓, 티켓링크